

- 주요 뉴스: 미국 7월 근원PCE 물가 예상치 소폭 하회, 9월 25bp 금리인하에 무게
 - 유로존 8월 CPI 예비치, 2.2% 상승하며 전월대비 둔화
 - 미국, 캐나다의 디지털세 부과 조치에 무역분쟁 협의 요청
 - OPEC+, 10월부터 원유 생산량 확대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와 개인소비 확대 등이 영향
 - 주가 상승[+1.0%], 달러화 강세[+0.4%],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강세
유로 Stoxx600지수는 ECB의 추가 금리인하 전망 등으로 강보합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착륙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 지속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8%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9월 빅컷(50bp 인하) 기대감 약화를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3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334.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7.4원, 0.01% 하락). 한국 CDS 상승

		8/30일	8/29일	전일대비			8/30일	8/2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648.4	5,592.0	+1.01%	국채 금리 10y	미국	3.90%	3.86%	+4bp
	유럽	525.05	524.57	+0.09%		독일	2.30%	2.27%	+3bp
	중국	2,842.2	2,823.1	+0.68%		영국	4.02%	4.02%	+0bp
	일본	38,648	38,363	+0.74%	CDS 5y	한국	32bp	31bp	+1bp
	한국	2,674.3	2,662.3	+0.45%		중국	57bp	57bp	+0bp
환율	달러지수	101.70	101.39	+0.35%	위험 지표	EMBI+	-	407	-
	유로화	1.1048	1.1077	-0.26%		VIX	15.00	15.65	-4.15%
	엔화	146.17	144.99	-0.81%		WTI유	73.55	75.91	-3.11%
	위안화	7.0913	7.0970	+0.08%	원자재	구리	414.5	414.8	-0.06%
	원화	1,337.5	1,332.5	-0.37%		금	2,503.4	2,521.4	-0.7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7월 근원PCE 물가, 예상치 소폭 하회, 9월 25bp 금리인하에 무게

-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의 연간 상승률이 2.6%로 전월(2.6%)과 동일하면서 예상치(2.7%)를 하회. 전체 PCE 상승률은 2.5%로 전월과 동일. 상품물가는 전월비 0.1% 미만으로 소폭 하락한 반면 서비스 물가는 0.2% 상승
- 개인 소득 증가율은 0.3%로 전월(0.2%)을 상회하였고 개인 지출 증가율도 0.5%로 전월(0.3%) 대비 확대
- Oxford Economics의 Michael Pearce는 견조한 소비가 지속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낮아지고 있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 CME의 FedWatch에 따르면, PCE지표 발표 직후 50bp 인하 가능성은 30.5%로 시장 참가자들은 25bp 인하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분석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해 실질 소득이 확대되었다고 강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유로존 8월 CPI 예비치, 2.2% 상승하며 전월대비 둔화

-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이 2.2%로 전월(2.6%) 대비 둔화되었고 근원 CPI 상승률도 2.8%로 전월(2.9%)을 하회하며 예상치에 부합
- ING와 Capital Economics 등은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ECB가 9월에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
- 한편, 슈나벨 ECB이사는 한 강연에서 최근 경제지표들은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할 것이라는 전망에 부합한다고 발언. 또한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9월 금리인하가 적절하다고 언급

■ 미국 금융감독청, 은행에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라고 요청

- 미국 금융감독청(OCC)은 은행별로 기후변화 대응 작업의 진척도에 차이가 있다면서 일부 은행의 경우 상당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또한 기후 온난화와 에너지 정책 변화 등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

■ 미국, 캐나다의 디지털세 부과 조치에 무역분쟁 협의 요청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빅테크 기업의 수익을 일방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기존 무역협정에 위배된다고 강조. 또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보복적 관세 부과도 가능하다고 발표

■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소폭 개선, 인플레이션 전망은 하락

- 미시건대학교에서 집계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확정치)가 67.9로 전월(67.8) 대비 소폭 개선. 미국 소비자들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2.8%로 전월(2.9%)보다 낮아졌으며 장기(5~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전월과 동일

■ 일본 도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개월 연속 확대

- 도쿄의 8월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전월 및 예상치(2.2)를 상회하며 4개월 연속 확대. 근원 CPI(식품, 에너지 제외) 역시 1.6% 올라 전월(1.5%) 대비 상승. 한편, 7월 소매판매 증가는 2.6%로 전월(3.8%) 대비 부진하고 실업률도 2.7%로 전월(2.5%) 대비 상승

■ OPEC+, 10월부터 원유 생산량 확대할 방침

- OPEC+ 산유국들은 10월부터 자발적 감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 이는 리비아의 원유 생산 차질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날 WTI 가격도 전일비 3.1% 내린 배럴당 73.6달러로 마감

■ 필리핀-베트남, 군사협력 강화 합의

- 필리핀과 베트남의 국방장관은 마닐라에서 회담을 갖고 방위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남중국해의 평화 유지를 강조하며 중국을 견제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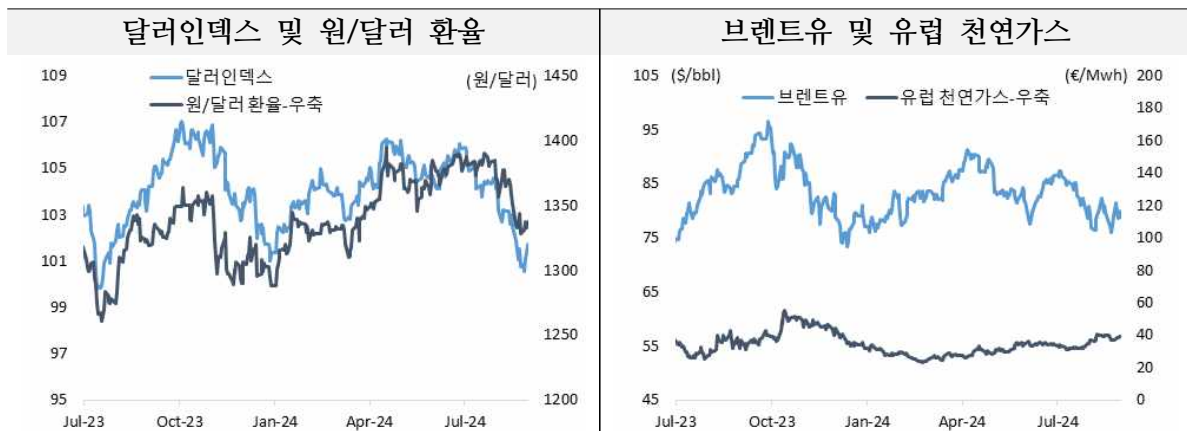
■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9/2~9/6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ISM 제조업 지수(9/3일), 시간당 임금상승률(9/6일)
- 중국 8월 차이신 PMI(9/2일), 미국·영국 등 8월 S&P 종합 PMI(9/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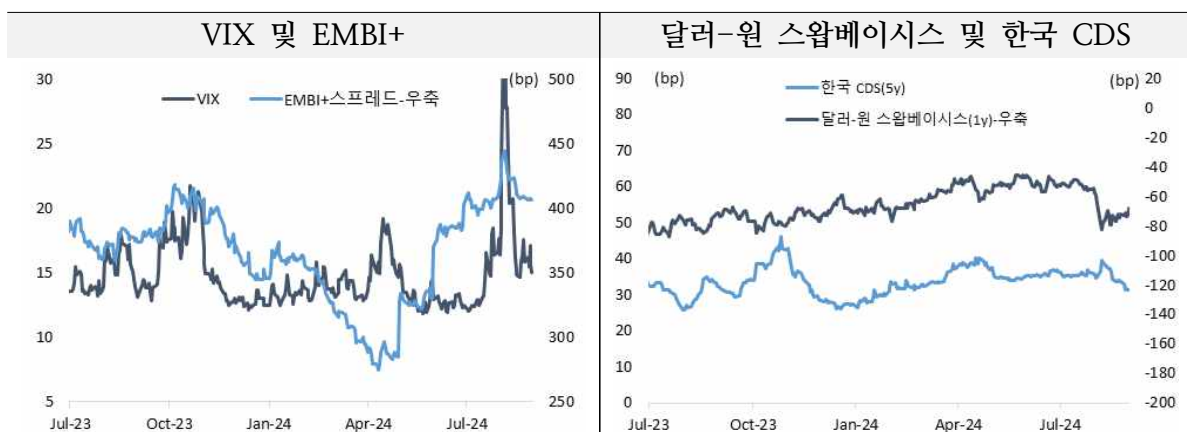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31, E-mail jgbaek@kcif.or.kr